

기타오카 자연공원

성하 마을과도 비교적 가까운 하나오카야마 산 기슭에 위치하며 녹음이 우거진 기타오카 자연공원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. 과거 이곳에는 1642 년에 호소카와 다다토시(1586-1641)부터 대대로 선조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묘게지 절이 있었으나, 정부의 신불분리령(神佛分離令)에 따라 1871 년에 폐사(廢寺)되었습니다. 이후 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공습으로 인해 파괴될 때까지 이곳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저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. 문을 지나 오른쪽 뒤편에는 묘게지 절의 가레산스이 정원이 남아 있습니다. 가레산스이란, 큰 바위와 자갈한 자갈을 사용하여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구마모토에서는 보기 드문 양식입니다.

정원 남서쪽의 오솔길을 따라 돌계단을 올라가면 묘소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도착합니다. 돌계단 아래와 중간 층계참, 돌계단 상부의 탁 트인 공간에는 총 66 개의 가신들이 기증한 석등롱이 있습니다.

문을 빠져나가면 3 개의 영묘가 마련된 직사각형의 광장이 나타납니다. 왼쪽부터 순서대로 아래와 같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.

- 호소카와 미쓰나오(1619-1650): 호소카와 가문의 4 대 당주. 묘게지 절을 창건.
- 호소카와 다다토시(1586-1641): 호소카와 가문의 3 대 당주. 미쓰나오의 부.
- 지요히메(1597-1649): 다다토시의 처.

당시 다이묘(영주)의 아내는 도쿠가와 쇼군의 명에 따라 에도(지금의 도쿄)에 거주하는 것이 의무였으며, 사망한 경우에도 에도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도쿠가와 히데타다(1579-1632)의 양녀이자 훗날 다다토시의 아내가 된 지요히메는 특별히 남편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.

2 개로 나누어진 영묘는 정면에는 배례를 올리는 하이텐(拜殿)이, 안쪽에는 다마야(사당)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각 영묘 안에는 거대한 오륜탑이 놓여 있지만, 문이 닫혀 있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. 광장 주변을 둘러싼 석탑은 주군이 사망했을 때 순절한 가신들을 모시는 묘입니다. 다다토시의 가신을 모시는 석탑 19 개와 미쓰나오의 가신을 모시는 석탑 11 개가 있습니다.